

베네데티의 시 6편

마리오 베네데티

§ 그대를 사랑해 Te quiero

그대의 손은 나의 애무
나의 일상의 선율
내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의 손이
정의를 위해 일하기 때문

내 그대를 사랑함은
나의 사랑 나의 공모자 나의 전부이기 때문
거리에 나가 어깨 걸면
우린 둘 아닌 여럿

그대의 두 눈은 액운을 쫓는
나의 주문(呪文)
내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의 눈빛이
미래를 응시하고 미래의 씨를 뿌리기 때문

그대의 것이자 나의 것인 그대의 입
그대의 입은 실수를 모르네
내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의 입이
반항을 외칠 줄 알기 때문

내 그대를 사랑함은
나의 사랑 나의 공모자 나의 전부이기 때문
거리에 나가 어깨 걸면
우린 둘 아닌 여럿

그대의 거짓 없는 얼굴
그대의 나그네 발길
세상을 위해 흘리는 그대의 눈물
내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가 곧 민중이기 때문

사랑은 영예도
단순한 교훈도 아니기 때문
또 우린 혼자가 아님을 아는
동행(同行)이기 때문

나의 낙원에서 나 그대를 사랑하네
나의 나라에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
허락 없이도

내 그대를 사랑함은
나의 사랑 나의 공모자 나의 전부이기 때문
거리에 나가 어깨 걸면
우린 둘 아닌 여럿

§ 당신들과 우리들 Ustedes y nosotros

당신들은 사랑할 때
안락함과
삼나무 침대
특별한 매트리스를 찾지

우리들은 사랑할 때
손쉽게 잠자리를 만드네
시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시트가 없어도 그만

당신들은 사랑할 때
이자를 셈하고
이별할 때
다시 주판알을 튕기지

우리들은 사랑할 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고
이별 후엔
마음 아파 괴로워하네

당신들은 사랑할 때
요란법석을 떨지
사진과 뜯소문이 가십난을 장식하고
사랑은 하나의 봄

우리들의 사랑은

건강과 견줄 만큼
소박하고 향기로운
평범한 사랑

당신들은 사랑할 때
시계를 보지
잃어버리는 시간은
억만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사랑할 때
서두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즐기며 우리 사랑의 의식(儀式)에는
많은 돈이 필요치 않네

당신들은 사랑할 때
분석가를 찾아가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건 바로 그의 몫

우리들은 사랑할 때
움츠리지 않고
잠재의식으로 재빨리
즐기기 시작하네

당신들은 사랑할 때
안락함과
삼나무 침대
특별한 매트리스를 찾지

우리들은 사랑할 때
손쉽게 잠자리를 만드네
시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시트가 없어도 그만

§ 아무도 몰라 Nadie lo sabe

아무도 몰라
아무도

강(江)도
거리도
시간도

스파이도
권력자도
거지도

재판관도
농부도
교황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도 몰라

§ 젖은 종이 Papel mojado

강들로 하여
피로 하여
비 혹은
이슬로 하여
정액으로 하여
포도주로 하여
눈[雪]으로 하여
울음으로 하여
시(詩)는
언제나
젖은
종이

§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Por qué cantamos

만약 매 순간이 죽음과 함께 온다면
만약 시간이 도적들의 소굴이라면
공기가 더 이상 청명하지 않다면
삶이 움직이는 과녁에 지나지 않다면

당신은 물을 것이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고

만약 우리의 환호성에 포옹이 없다면
우리의 조국이 슬픔으로 죽어간다면
아직 부끄러움이 폭발하기도 전인데

사람 가슴이 산산조각 난다면

당신은 물을 것이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고

만약 우리가 지평선처럼 멀리 있다면
만약 그곳에 나무들과 하늘이 남아있었다면
만약 매일 밤은 언제나 부재(不在)이고
눈플 때마다 어긋난 만남이라면

당신은 물을 것이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노래하는 건 강이 속삭이고 있기 때문
강이 속삭일 때 / 강이 속삭일 때
우리가 노래하는 건 무정한 강은 이름이 없지만
그 운명은 이름이 있기 때문

우리가 아이를 위해 노래하는 건 우리의 전부이자
미래이며 민중이기 때문
우리가 노래하는 건 살아남은 이들과
죽은 이들이 우리가 노래하길 원하기 때문

우리가 노래하는 건 외침으로 충분치 않고
탄식이나 분노로도 부족하기 때문
우리가 노래하는 건 사람들을 믿기 때문
우리가 패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

우리가 노래하는 건 태양이 우리를 알아보기 때문
들판에 봄내음 가득하기 때문

이 짝 저 열매에
모든 질문의 답이 있기 때문

우리가 노래하는 건 밭고랑 위로 비 내리고
우린 삶의 투사들이기 때문
우린 노래가 재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러길 원치도 않기 때문.

§ 전술과 전략 Táctica y estrategia

나의 전술은
그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그대를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나의 전술은
그대에게 말을 속삭이고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말로 파괴할 수 없는
다리를 세우는 것

나의 전술은
그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어떤 핑계를 둘러댈지도 모르지만
그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나의 전술은
그대 앞에 솔직해지고
그대의 솔직함을 아는 것
그리고 환영(幻影)으로
눈을 가리지 않는 것
우리 둘 사이에

장막도
심연도 없도록

반면
나의 전략은
더 심오하고 더
단순하네
나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어떤 핑계를 둘러댈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마침내 그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김현균 옮김]
